

# “무더운 여름 호사원과 호기롭게 이겨내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 ‘호기로운 호사원’ 활용 포토플레이스 8월 말까지 운영

“호사원과 즐기는 여름 바캉스 컨셉 ‘포토플레이스’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원장 김도영)은 관매관 내 마중관에서 여름 바캉스를 주제로 ‘호기로운 호사원’을 활용하여 포토플레이스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

‘호기로운 호사원’은 민화 속 까치호랑이를 모티브로,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MZ 세대 호랑이 콘셉트로 개발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자체 캐릭터로, 전주공예품전시관 내·외부 곳곳에 배치되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주제가 바뀌는 호사원 포토플레이스는 유난히 장마가 길어진 올여름, 아쉬움을 달래고자 바캉스를 주제로 마련되었다.

5가지 테마로 나누어진 포토플레이스는 도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튜브를 안고 있는 호사원과 함께 여름을 느끼는 여름바다 포토존 △시원한 볼풀로 꾸며져 있는 볼풀 포토존 △밝은 호사원 얼굴의 내온사인과 파라솔로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내온사인 포토존 △호사원 쿠션들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호사원 쿠션존 △호사원의 다양한 일상을 표현한 호사원 포스터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들고 달리는 호사원, 튜브를 끼고 달리는 호사원, 우비를 입고 인사하는 호사원, 수박을 먹고 있는 호사원 등 다양한 포즈의 호사원이 포토플레이스 곳곳에서 여름을 만끽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은 관매관 내 마중관에서 여름 바캉스를 주제로 ‘호기로운 호사원’을 활용하여 포토플레이스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호사원을 SNS에 공유하는 ‘호사원을 찾아라’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경품으로 호사원 한지 봉투와 스티커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한다. 호사원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받을 수 있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무더운 여름을 호사원과 함께 즐겁고 호기롭게 이겨내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사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역량증진 나선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글로벌 역량증진·해외미술트렌드 리서치’ 사업 선정

국립현대미술관의 2023년 미술관 협력사업인 ‘글로벌 역량증진 및 해외미술트렌드 리서치’에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추천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최종 선정됐다.

상기 협력사업은 해외 미술관 국제협력사업 등 운영사례 심층 리서치를 통한 지역 미술관 학예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가 목적인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대표관 추천으로 이루어진 심사에서 최종 10개 기관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총 10개 기관 중 전북도립미술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광역시도 지역 대표관에 재직중인 큐레이터를 추천한 반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지역 등록 공립미술관 중 한 곳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추천해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지역대표관 주관으로 14개 시군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 개최한 6차 연석회의에서는 8개 시군 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공립미술관 실무협의체(가칭)를 결성하기도 했다.

향후 전북도립미술관은 8개 시군 공립미술관과 함께 각 시군별 미술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분석·연구하거나 혹은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해보는 시도를 하게될 전망이다.

이애선 전북도립미술관장은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서 남원시 합과우 아트밸리 구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군 공립미술관 연석회의’에서도 이번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8월 11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8월 11일 오후 7시 30분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2023년 공연장 상주단체(사)드림필 하모니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의 세 번째 공연인 ‘광복절 기념 음악회’는 오케스트라에 맞춰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박진철, 최호준, 김성진, 바리톤 박세훈, 소프라노 김리라, 김도연의 성악가들과 국악인 오정해가 함께 하는 공연으로 구성되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

이와 함께 김제시는 음악회에 앞서 7시 10분부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관람권 배부는 8월 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배부하며 전석 무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섣달들 산골마을 영화제’ 상영작 선정

장수군, 20개국 31편 최종 선정... 8월 23~27일 개최

장수군이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장수군에서 개최되는 2023년 제2회 섣달들 산골마을 영화제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출품공모 상영작 선정을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는 109개국 1,203편 접수했으며, 장편 5개 작품, 중단편 26개 작품, 20개국 31편이 최종 선정됐다.

전통 마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며 숲을 가꾸는 마을 영화에는 △맨타와이 숲의 영혼(인도네시아) △사랑받는(터키)가 선정됐으며, 개발·독립·기후변화 등 위기에 처한 마을과 사람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에는 △보크사이트(브라질) △완복수(말레이시아) △회복춤(솔로몬제도) △3일간의 자유(세르비아)가 선정됐다.

또한 빈부격차, 교육차별 등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마을 이야기에



는 △아무개(공고) △헤이구네쉬(조지아) △생계의 꿈(인도) △키란-한줄기 빛(한국)이, 어느 마을에서나 일어날 법한 공감의 이야기를 다룬 주제로는 △속향(키르기스스탄) △행동파남자(투르메니아)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공공남편(네팔) △K2와 투병하인들(파키스탄) △칼라리사 천상의 땅(몰도바) △하부구조의 친구들(한국) 악마들의 땅(이란, 한국)과 애니메이션 작품들까지 세계 각 마을의 많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태권도원서 태권도 체험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8.1.~12 /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원) 참가 대원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잼버리 사진·사후 프로그램은 비롯해 잼버리가 열리는 기간 중 세계 청소년들이 태권도원에서 상설공연 관람, 태권도 체험,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전방대 견학 등 인기 K-콘텐츠로 부상 중인 태권도를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사진·사후 프로그램에는 멕시코 400여

명과 아일랜드·호주 참가자 480여 명이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을 통해 태권도를 즐기게 된다. 이어서 잼버리 기간인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매일 160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권도원에서 상설공연 관람과 전방대 견학, 힐링태권체조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단, 8월 6~7일은 미운영)

특히, 참가 전원이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태권도 기본동작을 익혀보는 힐링태권체조 콘텐츠 체험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게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백두대간의 침입자들’ 남원서 개최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백두대간의 침입자들’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생태계교란 생물과 침입 외래생물을 주제로, 외래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내의 생태계 교란 생물, 해외를 습격한 토종 생물,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등 40종 500여 개체의 살아있는 동·식물들로 구성된 예정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친근하고 흥미롭게 배워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너프건 사격장, 모래 놀이터, 대형 새총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8월 15일 광복절은 정상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